

【서 평】

제국의 장막을 들추다: 『제국의 혼돈』

Amy Kaplan, *The Anarchy of Empire
in the Making of U.S.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박진빈

(광운대학교)

지난해 미국학회(American Studies Association)장이었던 펜실베니아대학 영문학과 에이미 캐플란 교수의 2002년도 저작의 제목은 다소 혼란스럽다. 굳이 직역을 한다면 『미국 문화 형성에서 제국의 혼돈(무정부)상태』일 텐데, 이런 단어의 나열들로써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목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차차 다루기로 하고 우선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은 대략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그런데 목차와 대략적인 내용을 훑어보면 캐플란의 사료 선택은 어쩌면 제국주의라는 무거운 주제와 몹시 동떨어져 보인다. 저명한 흑인 사회학자 두보이즈(W.E.B. Du Bois)의 비교적 덜 알려진 저서 『검은물(Darkwater: Voices From Within the Veil)』은 차치하고라도, 빅토리아 시대 부르조아 여성성의 상징물인 가정관리 지침서들(대표적으로 *Godey's Lady's Book*)이나 『툼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미국 남부지역 기행문이 미제국주의 진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것인지, 궁금증을 넘어서 의아함마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견 산만해 보이는 이러한 다양한 사료들은 캐플란의 매끄럽고도 수려한 문장을 통해 잘 짜여진 그물망과 같은 모습으로 재구성되어, 미국이 제국으로 탄생하는 시대를 또 다른 형태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캐플란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제도로서의 제국 건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 제국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제국을 '미국인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즉, 미국이 영토내의 정복을 마치고 중남미와 태평양 너머 멀리 필리핀까지 군사력을 투입하면서 제국으로의 진화해가던 시기,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적응시키려 노력했는가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캐플란이 선택한 사료들은 다름 아닌 미국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 설명을 표현한 문화적 매체들이다. 인기소설, 흥행영화, 대중잡지, 유명한 작가들의 다양한 형태의 자국 관찰과 분석. 이렇게 보면 캐플란이 선택한 자료들이야말로 '자신과 타자에 대한 시선으로서의 제국주의'를 드러내 보여주기엔 가장 적합한 것들이다.

사실 제국주의가 문화적으로 표현된 형태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캐플란의 주장은 이미 그녀가 공동편집자로 나섰던 전작, 『미국 제국주의의 문화(Cultures of the United States Imperialism, Duke University Press, 1993)』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그녀는 이 책에서 미국 제국주의는 근본적으로 서술, 재연, 인식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따라서 제국주의의 논지가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인 매체들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캐플란의 본래 문제의식은 『제국의 혼돈』으로 계승되어 연구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제국의 혼돈』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1장: 명백한 가정성(Manifest Domesticity), 제5장: 제국의 탄생(Birth of an Empire), 그리고 제6장: W.E.B. 두보이즈의 제국 지도(The Imperial Cartography of W.E.B.

Du Bois)이다.

“명백한 가정성”은 짐작한대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응용한 캐플란의 재치있는 조어이다. 식민지시대 거친 자연과 원주민과의 싸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서부로의 전진을 지속하고 마침내 멕시코 왕국과의 영토획득 전쟁을 치르게 된 1840년대 미국이 그와 같은 스스로의 여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했던 단어가 바로 “명백한 운명”이었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은 바로 신이 부여한 사명이자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고로 명백한 운명론은 미국이 그때까지의 내부적 정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향후 외부적 팽창의 가능성을 예견하게 해주는 이념적 근거로서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다.

그런데 캐플란은 명백한 운명론의 본산지인 프론티어의 점령에서 중시되었던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미국 제국주의 팽창의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낸다. 기존의 서부사에서 서부 진출의 역사를 주로 거칠고 강인한 남성들의 영역으로 기술했다면, 캐플란이 바라본 서부사는 미국이 광활한 황무지를 아늑하고 포근한 ‘가정’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프론티어가 진정한 의미의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분리된 영역(separate spheres)”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가정성의 신화(cult of domesticity)”가 발휘될 필요가 있었다. (p.24-29) 그러므로 <고디의 숙녀 지침서>는 백인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것을 미국 백인들만이 가진 특성으로 주장하고, 이것이 바로 백인의 우월주의, 타인종에 대한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기에 이른다. 여성이 여성스럽게 이상적인 가정을 조성하는 행위는 앵글로 색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바로 그들이 서부의 주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이는 분리된 영역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의 미묘한 결합이자,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 인종을 교차시킴으로써 비백인은 이러한 “가정적 국민주의(domestic nationalism)”에서 영원한 타자,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구조를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p.37-39)

“명백한 가정성”의 가장 흥미로운 예는 아마도 <고디의 숙녀 지침서>에 의해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으며 가정적 국민주의의 중요한 논객으로 활약한 사라 조세파 헤일(Sarah Josepha Hale)은 멕시코전쟁이 한창이던 1847년 <고디>를 통해 추수감사절을 국민통합의 명절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결국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인 국경일로 제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적으로 집요하게 추진했다. 헤일에 따르면 이 전국적 의례는 “세인트 존스에서 리오 그란데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 국경까지... 각 주 단위에서 각 가정의 단위에서, 우리의 위대한 국가를 단합시킬 것”이었다. 물론 그 휴일의 가장 중요한 의례는 숙녀들이 꾸민 아늑한 가정에서 온 식구가 둘러앉아 숙녀가 마련한 정찬을 나누는 행위였다. (p.35) 이렇게 여성성의 신화는 국민성의 신화로, 그리고 앵글로색슨 미국인의 단결이라는 과업으로 연결되었다. 사실 “가정”이기도 한 동시에 “내무/국내”의 뜻도 가진 “domesticity”의 특성상 <고디>의 글에서 “domestic”은 “가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내무적인”, 즉 “국내의”로도 번역 가능하다. 영문학자인 캐플란의 언어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돋보이는 분석인 것이다.

한편 “제국의 탄생”이라 제목이 붙여진 제5장은 그리피스(D.W. Griffith) 감독의 유명한 흑백 무성영화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한다. 1915년에 만들어진 기념비적 서사영화 “국가의 탄생”은 1860년대 남북전쟁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남부와 북부 출신의 두 가정의 역사를 그렸다. 이 영화에서 노예 해방을 이끄는 링컨의 공화당은 비현실적 백인 이상주의자들과 폭도에 지나지 않는 흑인 정치꾼들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정당이며, 흑인 노예 해방 이후 남부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의 혼돈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부당하게 빼앗긴 백인의 권리를 되찾고 흔들린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오직 남부의 지조있는 신사 숙녀들이 만들게 되는 쿠 클럭스

클란(Ku klux Klan: KKK)이다. “국가의 탄생”은 이렇듯 인종주의적인 시각과 KKK단 미화로 유명한 영화이다.

그런데 캐플란은 여기에 흥미로운 분석을 더한다. 그리피스의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남북전쟁 시기 흑백간의 인종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로부터 가까이 경험했던 미서전쟁에 대한 해석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KKK단의 기마대가 흑인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 출병하는 모습은 쿠바 전쟁에서의 영웅인 시오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거친 기병대(Rough Riders)”의 진군 장면을 그대로 재연한 것이다. 미국의 일등시민으로서 흑인의 부적격성과 백인에 의한 인종주의적 통치의 정당성을 말하는 이 영화가 사실 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백인지상주의(white supremacy)에 대한 가장 최근의 위협인 미서전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건방진 흑인 정치인 사일러스 린치(Silas Lynch)가 백인 여성에게 청혼하면서 “나는 제국을 건설하고 당신은 나의 여왕이 될 것이요”라고 읊었을 때, 제국은 두 사람의 가정에 대한 은유이자 말 그대로 미국이 건설할 제국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p.161-164)

이러한 캐플란의 분석은 오손 웰즈(Orson Welles)의 “시민 케인(Citizen Kane)”으로 이어지고, 또한 먼저 3, 4장에서 다룬 저명한 대중작가들의 소설, 잡기 기고문, 기사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한다. 캐플란의 관점에 따르면 마크 트웨인, 토마스 디슨(Thomas Dixon), 스티븐 크레인(Stephen Crane), 그리고 시오도어 루즈벨트의 글들에는 그리피스 영화와 공유하는 논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바다 밖에서 점령하고 정복하는 행위가 내부적으로 백인지상주의를 강화하고 갈등을 무마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서술에서 미국의 역사는 내부적 팽창에서 해외로의 팽창까지의 지속성의 역사로 그려지며, 내무적 정책과 대외 전략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p.94-97)

남북전쟁과 미서전쟁의 연관성, 내부적 갈등과 외부와의 갈등의 연

속성에 대한 캐플란의 분석은 마지막 장의 주제인 두보이즈의 반제국주의에 대한 서술로 연결된다. 두보이즈는 역사가이며 흑인 최초의 하버드대 박사였고 민권운동의 대부로, 1909년 전국유색인지위향상연합(NAACP)의 창립을 돕고 오랫동안 그 기관지인 <위기(The Crisis)>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의 활동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국내 흑인 지위 향상과 관련된 부분이며, 가장 유명한 저서는 평등권 실천을 위한 교육과 경제적 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설파한 『흑인의 영혼(Souls of Black Folk)』과 미국 최초의 사회학적 조사연구 및 민속지로 평가되는 『필라델피아 검둥이(The Philadelphia Negro)』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캐플란이 『제국의 혼돈』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보이즈의 1915년 이후의 “국제적” 활동 경력이다. 두보이즈는 인종의 문제가 미국 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수탈, 혹은 백인에 의한 비백인의 전 세계적 차원의 억압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분석을 추구했다. 그는 1919년 범아프리카회의의 결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제국주의 문제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결합된 일종의 국제적 인종 문제로 해석했다. 경력을 더해갈수록 두보이즈의 비판은 더욱 급진화되었고 그는 공산당원이 되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갈등과 실망 속에 아프리카 행은 더욱 잦아졌으며, 만년에 접어들어서는 아예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963년, 그는 가나의 시민으로서 가나에서 사망했다. 『검은물』은 그의 1920년 저작으로, 그의 다른 저작들보다 유명세가 덜하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그의 후기 경력을 설명해주기에 적절한 책이다.

『제국의 혼돈』을 통해 두보이즈는 동시대의 그 어떤 위대한 문인이거나 정치인, 문화예술계의 거장들보다도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파악하고 있었던 지성이었음이 증명된다. 그는 미국 내부의 인종 관계와 지배/피지배의 문제가 국제적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비판했던 것이다. 이렇게 『검은물』은 미 제국주의 발현

에의 찬사로 1899년에 쓰여진 루디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백인의 짐(The White Man’s Burden)”에 대한 정면 반박의 글인 동시에, 두보이즈 자신의 미국 내부 문제에 대한 전작 『흑인의 영혼』과 함께 읽어야 할 동반서로 쓰여 졌다. 캐플란이 약 1세기 후에 분석하고 있는 <고디>나 루즈벨트, 그리고 그리피스 등의 제국주의적 논지와 목표를 두보이즈는 이미 당대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캐플란이 제목으로 선택한 “제국의 혼돈(무정부)상태” 역시 바로 두보이즈의 『검은물』에서 따온 문구이다. 여기서 두보이즈는 “제국이 식민 지배를 위해 사용하는 폭력과 파괴의 무질서”를 그렇게 표현했다. 즉, 제국은 질서를 추구하면서 폭력적 혼돈 상태를 만들어 내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검은물』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 “인민에 바치는 찬가”는 바로 그 “제국의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모든 인종과 남녀노소가 단결”할 것을 기도한다. (p.206-210)

그런데 캐플란은 두보이즈의 개념을 단순히 빌려왔다기 보다는 그 개념을 좀 더 심화시킨 듯하다. 그녀가 말하는 “제국의 혼돈”은 제국이 추구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들(백인-비백인, 서양-식민지, 지배-피지배, 국내-국제)과 그 구조에 기반을 둔 “질서”의 붕괴 상황도 포괄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두보이즈가 말한 피지배에서의 혼돈 외에도, 제국이 질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국내에서도 자신의 논리자체의 모순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 있음을 의미한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캐플란이 말하려는 제국의 혼돈이란 질서정연하고 무게잡혀 보이는 제국의 커튼을 슬쩍 들추어 보았을 때 드러나는 무대 뒤 풍경 같은 것이다. <고디>나 그리피스의 영화, 그리고 마크 트웨인의 글에는 무대 위에 올려진 멋진 장면과 그에 심취한 관객만 있을 뿐이다. 두보이즈는 무대에 올려지지 않는 흉한 이야기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데 캐플란은 어두운 무대 뒤로 조명을 비추어 보면 연극 그 자체도 그다지 조화로운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캐플란의 『제국의 혼돈』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이 책은 미국의 역사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복의 역사 속에 제국주의를 위치시킴으로써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연속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둘째로 그러한 내외부적 팽창의 과정은 미국 백인들이 그 과정에서 만나는 내부의 타자들(원주민, 흑인)과 외부의 타자들(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에 대한 차별적 개념의 정교화와 동반되었음을 캐플란은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제국의 혼돈』은 그와 같은 미국 제국주의 출발에서 백인 지상주의나 여성성의 영역과 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또 서로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기능하는지 밝혀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 책의 성과는 내무적 문제와 국제적 문제 사이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드러내준다는 점이다. 캐플란이 보여주었듯 미국 제국주의의 발전과 흑인 노예제의 변화는 동반되는 사건이다. 특히 세기말 팽창과 남부계건의 향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식민지 인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 문제는 해방 이후 흑인의 거취와 직접 닿아있는 사안이었다. 캐플란이 설명하는 대로, 푸에르토리코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Insular Cases)은 직전에 있었던 흑인 노예지위 문제에 대한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p.9) 그러나 이러한 국내 및 국제 문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미진한 상태이다. 미국사에서 노예제나 남부의 역사는 서부개척사와 별도로 취급되고, 외교사는 외교사대로 재건사는 재건사대로 따로 수행된다. 국내 민권 탄압과 제국주의적 침탈은 별개의 영역이다. 하지만 캐플란은 그러한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학제적 영역을 넘나드는 연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다. 공력 쌓인 영문학도의 진면목은 이렇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 제국주의 발전의 역사가 미국사적 그리고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이다지도 명석하게 설명되었다는 것이다.